

급성장하는 東京原油현물시장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1. 현물거래확대로 급성장

東京原油현물시장은 최근 1~2년 사이에 급성장을 하고 있다. 그 전까지의 東京시장은 原油구매량 면에서 자유세계중 둘째라는 잠재력을 갖고 있으면서 歐美측에서 본다면 極東의 한 시장에 불과했다. 그 최대의 원인은 歐美와 日本에서 구입하는 原油의 油種이 다르다는 점에 있었다.

뉴욕에서 거래되고 있는 WTI(美國 서부텍사스產 中質油)와 런던에서 거래되고 있는 北海產原油는 자매관계에 있으며, 兩者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움직인다. 한편 東京에서 거래되는 中東原油는 전혀 異質의 油種이며, WTI나 北海原油와는 가격움직임 그 자체가 다르다. 따라서 東京과 歐美의 시장을 연결할 필요성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 1~2년 동안에 이와 같은 장벽이 허물어진 것은 商社를 중심으로 한 트레이딩에 대한 바가 크다.

外換등의 거래와 다른 것은 거래가 카고(cargo) 單位로 이루어지며, 두바이등의 中東原油로 1카고 50만배럴, 北海產 브렌트로는 60만배럴로 대규모이다. 작년과 같이 原油가격의 심한 등락시에는 순간의 판단을 잘못하면 한번의 거래에서 수억圓의 손해를 보는 냉엄함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많은 商社들은 東京에서 두바이原油를 매입한 경우에는 런던에서 브렌트를 팔며, 반대로 두바이를 팔았을 경우에는 브렌트를 매입하는 油種間去來(exchange)에 의하여 헷지(hedge)를 하게 되었다. 이 결과, 中東原油와 歐美原油의 움직임이

連動하게 되었다.

또한 작년 原油가격폭락시에는 OPEC (석유수출국기구)의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政治色이 짙게 남아 있던 中東原油가 市況商品으로 「脫皮」한 것도 東京市場의 성장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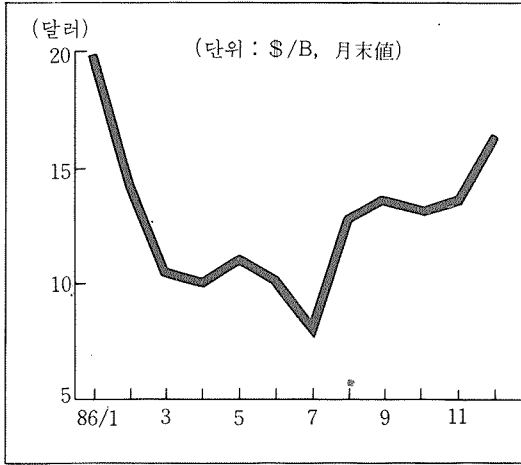
이러한 움직임을 계기로 歐美勢는 「東京의 中東原油」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현재 세계의 석유관계자들은 런던이나 뉴욕은 물론 連繫役인 東京시장에서도 잠시도 눈을 땔 수 없게 되었다」고 東京시장의 변모를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현재 東京시장의 하루 거래량은 3백만배럴로 국내소비량의 거의 1일분에 상당한다. 2년전과 비교하면 3배이상 증가하였으나, 런던시장의 1천만B/D와 뉴욕시장의 1천4백만B/D에 비하면, 아직 규모가 작다. 그러나 「향후의 성장성은 東京이 제일」이라는 것이 衆論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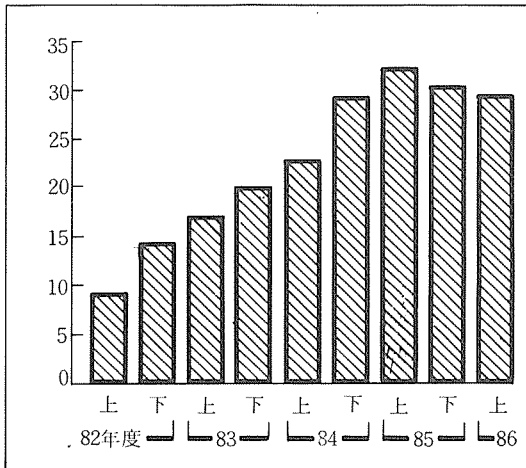
작년 歐美의 유력한 석유브로커인 P·V·M社가 日本시장에 진출하였다. 또한 英의 환오일社도 진출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들 석유브로커의 진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미 日本에서의 영업을 시작한 美國의 아메텍스社에 의하면, 歐美에서는 이미 中東原油를 무시하고 歐美原油만으로 broking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이들 新參者들이 東京原油현물시장의 국제화를 한층 더 가속시키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日本의 석유회사가 구입하는 原油의 90%가 가까운 장기계약물이었다. 현재에는 현물구입이 30%로 증가하였다. 그 현물가격의 변동에 수반하는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서도 東京현물시장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東京原油현물시장의 두바이原油가격 추이



日本の 현물原油구입비율 추이



2. 현물거래의 과열

「앗! 兼松이 3月引渡分을 잡았다」—新正의 들뜬 기분이 가라앉지 않은 1월 6일 오전 東京 原油현물시장의 트레이더들에게 일시적인 긴장감이 감돌았다. OPEC는 작년 12월의 정기총회에서 減産강화와 배럴당 18달러의 固定價格制로의 移行을 결의했다. 그 직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필두로 각 산유국은 소비국들에게 공급량의 삭감이나 原油가격의 인상을 통고하는 등 작년말부

터 세계의 原油가격추이는 크게 변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始務日인 이날 前日 뉴욕의 강세에 대한 警戒感도 작용하여 市場에는 아직 관망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이 정적을 깬 것이 兼松江商였다.

兼松江商이 原油의 트레이딩에 뛰어든 것은 3년전의 일. 그 때까지 三菱商事, 三井物産, 伊藤忠商社 등 선발 그룹의 두꺼운 벽에 막혀, 「에너지後發」의 비애를 맛보고 있던 同社는 활로를 原油트레이딩에서 찾으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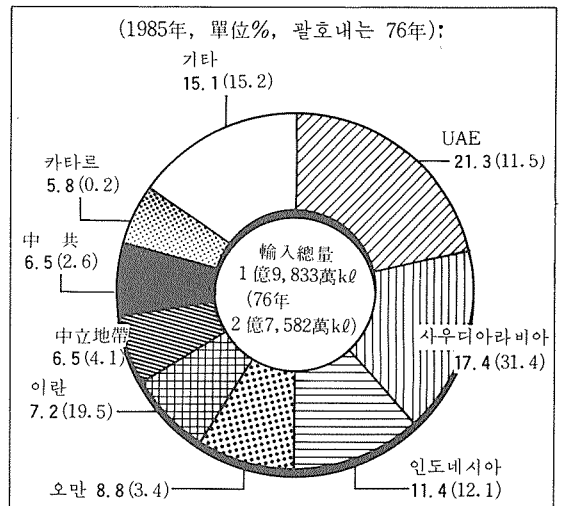
그 모험은 주효하여 거래량은 매년 倍增하였다. 同社는 현재 세계에서 선두그룹의 트레이딩기업으로 성장하였다. 東京을 중심으로 런던, 뉴욕등 세계 3大 原油현물 시장에서 경이적인 규모의 「매도」와 「매입」의 주문을 내고 있다.

兼松의 성공에도 자극받아 各商社들은 트레이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丸紅는 뉴욕, 런던의 現地法人에서 外國人트레이더를 채용, 北海브랜트나 두바이등 中東産原油를 대상으로 한 트레이딩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同社 전체의 原油거래량은 현재 하루 2백만배럴이며 1년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백만배럴 가운데 절반은 트레이딩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한편 原油트레이딩에서는 先輩格인 伊藤忠. 에너지부문의 現地法人 CIPCO·UK(本社 런던)를 82년에 설립, 中繼基地 東京과의 連繫활동으로 스위프트나 3國間거래등

産油國別로 본 日本의 原油輸入量



에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

三菱商事, 日商岩井등도 「추격·추월하자」는 결의 아래 젊은 트레이더의 육성, 트레이딩의 확대등을 목표로 기구개혁을 단행했다. 賣上競争이 치열한 商社 중에서 현재 종전부터 수수료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곳은 住友商事뿐이다.

商社의 原油거래는 석유회사와 산유국이 商社를 통하지 않고 직접계약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에 최근 수년간은 활동무대가 급격히 좁아졌다. 트레이딩에 대한 各社의 적극적인 대응자세는 새로운 오일비즈니스를 모색하고 있는 움직임이 표면화된 것이기도 하다.

商社의 참가가 계속되는 한편 TWO (Trans World Oil), 피부로, 마크리치등 歐美석유티레이더, 나아가서는 토탈 프랑스 石油(CFP) 등 메이저도 이미 활약중이다. 종전의 현물시장은 석유회사와 장기계약에 의하지 않은 現物原油를 조달한다는 성격이 강하였으나, 현재는 현물시장의 주요거래는 商社나 석유티레이더, 메이저등에 의한 트레이딩으로 옮겨간 감이 있다.

최근 日本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소문나 있는 歐美석유회사들은 수없이 많다. 이탈리아의 국영석유회사인 아지프社, 현재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메이저 세브론 등 큰 외국기업들이 호시탐탐 진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석유회사들은 트레이딩熱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하여 계속 외면해 왔다. 「돈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코미션거래이며, 석유회사와는 관련없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석유회사 중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석유회사가 실제로 구입하는 「실물거래 (Wet Barrel 또는 Wet 거래)의 가격에도 트레이딩에 의한 「紙上거래」(Paper Barrel 또는 Paper 거래)의 가격이 큰 영향을 주게 되었기 때문이다. 석유회사중에서는 出光興産, 鹿島石油등이 트레이딩에 참여하고 있다.

3. 밀려오는 국제화의 파도

작년 12월 22일 일요일, 선달특유의 부산함이 감도는 東京·港區의 아침 오피스街. 한 사람의 남자가 깨끗한 빌딩의 한 방문을 조용하게 열었다. 前週末 OPEC총회가 難産끝에 「固定價格制」의 부활을 결정함으로써 석유업계 전체에 原油정세의 장래에 不透明感이 확산되고 있

던 이 날 그에게도 또한 특별한 불안감이 떠 올랐다.

河野拓씨(36세), 三菱商事의 민완트레이더로서 이름을 떨쳤던 인물이다. 그 三菱商事를 작년 12월 1일자로 퇴사하고,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 本社를 둔 석유티레이딩회사인 뷔틀社의 日本代表로 변신하였다. 20일만에 걸친 本社에서의 연수를 마치고, 이 날이 그로서는 기념할만한 「첫출근의 날」이었다.

「5~6년전부터 여러 회사로부터 권유가 있었으나 大組織의 商社를 떠나는 것에는 쉽사리 결단을 내릴 수 없었다. 그러나 계속 고민을 하는 중에도 점차 나이를 먹게 되고, 40세까지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좋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商社에서 歐美의 석유회사로의 인재유출은 原油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재작년후반부터 눈에 띄기 시작했다. OPEC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소비국의 발언권이 증대하는 가운데 뉴욕, 런던에 이은 市場으로서 급성장하고 있는 東京이 크게 각광을 받아 歐美의 석유회사들이 점차 東京에 진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東京에 진출한 歐美의 석유회사등으로서는 大商社의 우수한 트레이더는 스카우트의 대상. 東京시장의 트레이더는 50명 안팎이지만, 이 중에서도 스카우터의 표적이 되고 있는 인재는 아주 극소수. 재작년 후반에는 那須久志씨(42·伊藤忠→엘프社) 등 제1선트레이더 3명의 轉身이 화제를 불러 일으켰으며, 그후 그들의 활약이 歐美勢의 인재스카우트熱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작년 12월에 大型商社로부터는 또 한명이 歐美의 석유회사로 轉身하였다. 元永義重씨(37). 丸紅 뉴욕 本店에 근무하면서 그의 존재가 알려진 유능한 트레이더이다.

穴水씨로부터 美國의 아메렉스(本社: 뉴욕)로 옮기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上司인 原油부장 德田浩二씨(50)는 순간적으로 말을 잊어버렸다. 장래가 촉망되는 만큼 남아 있으라고 설득하였으나, 그의 결의는 확고하였다.

「설득을 거듭하는 가운데 그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는 오히려 옮기는 편이 낫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현재로는 丸紅에 근무했었다는 것을 긍지로 여기고 열심히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뿐이다」라고 德田씨는 성원을 보냈다. □

〈日本經濟新聞, 1987. 1. 16〉